

Colchicine 복용으로 발생한 횡문근 용해증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곽충환 · 윤정수 · 진규복 · 성정훈 · 곽진호 · 황은아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배 경 : 횡문근 용해증은 음주, 외상, 바이러스 감염, statin 계열의 지질강하제, 기타 약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통풍에 효과적인 치료 약제인 colchicine 사용시 간기능 수치의 증가, 근육병증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횡문근 용해증이 합병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colchicine에 의한 횡문근 용해증의 보고는 없다. 확장성 심근병증과 만성신부전을 가진 환자에서 통풍으로 colchicine 투여 후 횡문근 용해증이 발생된 예가 있어 보고한다.

증 례 : 환자는 55세 남자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병력상 5년 전 심부전, 신부전으로 개인의원에서 치료받아 오던 중 3개월 전부터 통풍으로 colchicine을 복용하였다. 내원 5일 전부터 서서히 호흡곤란과 하지부종, 근육통이 발생하여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내원시 혈압은 142/97 mmHg, 분당 맥박수는 116회, 호흡수는 25회였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폐야에서 약설음이 청진되었으며 복수와 양측 하지의 동통을 동반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실험실 검사상 K 8.9 mEq/L, BUN/Cr 64/4.0 mg/dL, Myoglobin 3,525 ng/mL, LDH 1,745 IU/L, CK 419 IU/L, AST 962 IU/L, ALT 1,004 IU/L, 소변 검사상 RBC many/HPF를 보였다. 전신골주사상 양측 대퇴부에 강한 방사선 섭취가 관찰되어 횡문근 용해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췌노와 고칼륨혈으로 응급 혈액투석을 시행하였고 colchicine 중단과 수액요법을 통하여 신기능의 호전과 간기능 수치, 근육효소 수치의 감소를 보였고 퇴원 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이다.

결 론 : 만성신부전을 가진 환자에서 colchicine 투여 후 횡문근 용해증이 발생 가능하므로 colchicine 사용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